

전북자치도,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전

연일 무더위에 도내 전지역 폭염특보 발령... 최고 체감온도 35℃ 안팎 기록
온열 질환자 217명 발생... 쉼터 운영·살수차 투입·취약계층 보호활동 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 북서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 는 곳이 있고, 특히 최고체감온도가 35℃ 안팎(폭염주의보 지역 33℃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같은기간 전년 186명과 비교해 17%가량 늘어난 217명으로 집계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쉼터 운영, 살수차 투입, 취약계층 보호활동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대응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말부터 도내 각 시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찰과 더불어, 무더위쉼터 운영, 이동식 쉼터 설치, 생수 제공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숙인, 독거노인, 영농 및 건설현장 근로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13일 오전 11시를 기해 하루 95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근무에 돌입했다.
이번 폭염 대응은 단기적인 피해 저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재난대응체계의 점검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217명의 환자 중 60대 이상이 105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논밭과 작업장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사례가 많아, 고령 농업인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고,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기상예보에 따라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체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도내 체육행사 시 긴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점검과 함께 생수 비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이 무더위쉼터를 활용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청년농에 스마트팜 조성비 70% 지원

전북자치도, 내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23곳에 101억원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26일까지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조성비 70%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에 정착하려는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시설원에 스마트팜 일체를 지원해 가족 단위의 농촌 정착과 즉각적인 농업 경영을 유도한다.
내년도에는 23개소에 101억원을 투입하며, 개소당 4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등이다.
도는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타시도 청년농의 지속적인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내 우수 청년농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된 시점부터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특히 단순 보조 사업에 그치지 않고 농촌 고령화 현실 속에서 청년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기 모임을 마련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며,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자를 결정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스마트팜 조성에 앞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 노하우와 재배작물 선택, 유통전략 등을 익혀야 한다.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리더십 교육과 갈등관리 교육 등도 이수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KIST 전북분원 방문... 산·학·연 협력 강화

탄소·이차전지·첨단바이오·AI 등 미래 신산업 공동 대응 모색... 김종훈 부지사 “지속 협력으로 성공사례 창출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과 손잡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25일 완주에 위치한 KIST 전북분원을 방문해 주요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분석장비실과 공정장비동을 둘러보며 연구진과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KIST 전북분원은 2008년 복합소재기술연구소로 설립돼 현재 26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첨단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고기능성 복합소재, 탄소용 복합소재, 미래수송기기,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전북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협력해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산·학·연 연계 첨단소재 특화사업 △탄소복합재 공정장비를 활용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25일 완주에 위치한 KIST 전북분원을 방문해 주요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KIST 전북분

원이 다양한 원천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도내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이차전지뿐 아니라 첨단바이오,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축산연구소, 임실군 저지종 전문목장 조성 기술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가 임실군 농생명산업지구를 저지종 젖소 사업의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수정란 자체 생산하여 임실군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 축산연구소는 25일 임실군이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확보한 저지

종 공란우 6두를 대상으로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생체난자흡입술(OPU)을 실시해 난자를 채취했다. 이후 미국산 생감별 저지종 정액을 활용해 체외수정(IVF)방식으로 저지종 수정란을 생산하는 기술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축산연구소와 임실군간 체결한 ‘낙농산업 발전 업무협약

(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축산연구소는 향후 2주 간격으로 지속적인 채란을 실시하여 수정란을 생산해 임실군의 저지종 전문목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저지종 젖소는 기존 홀스타인 품종보다 원유 단백질과 유지방 함량이 높아 고급 치즈와 유제품 생산에 유리하

다. 또한 분뇨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축산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가족 보급을 넘어 농생명산업지구의 미래 성장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임실군, 치즈농협, 국립축산과학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저지종 젖소의 안정적인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공공형 어린이집 11곳 신규 지정 접수

내달 8일까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9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1개소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9월 29일 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3곳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 도내에는 총 97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도로부터 운영비 및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받는다. 운영비 지원은 교사의 근무 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며, 교육환경 개선비는 시설 노후화 개선, 교재·교구 확

충, 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정 후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통해 운영 품질을 점검 받는다. 평가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반별 운영비 40만원, 재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 개선비 1만 5,000원이 기본이며,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별로 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유아반은 반별로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 보육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과 현장 확인을 거쳐 별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이만호 기자

도, 용담호·옥정호 녹조 대응 비상체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이어진 폭염으로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발생이 증가하자 현장 점검에 나서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현재 두 호수에서는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유해 남조류 1,000세포수를 이미 1회 초과한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5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이며, 결과가 재차 1,000세포수를 넘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25일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용담호 현장을 방문해 녹조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료 채취 과정을 확인했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K-water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주변 오염원 합동점검△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강화 △녹조 저감설비 사전 점검·가동 △부유쓰레기 수거 등 예방 조치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산박을 활용한 녹조 교란 및 저감설비 확대 △상류 오염원 배출시설 특별 점검 △취수수심 조정 및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채 권 신 고 공 고

본 회사는 2025년 8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해 채권이 있는 분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8월 19일
진안홍삼품질인증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1
청산인 고영만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

아름답고 청정지역인 장수군 천천면에서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열립니다.
농촌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일시: 8월 30일 오후 2시
- 2. 장소: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체육관(위치: 천천면 사무소 앞)
- 3.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수군지부
- 4. 주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재전주 천천면 향우회
- 5. 주요행사: 축하공연(식전 및 식후), 개회식, 노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문의: (063)231-6669, 010-7304-5665
(063)285-6676, 010-4658-819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